

■ 법률 칼럼

사업자의 선택: 위험의 감수, 혹은 관리

얼마 전 젊은 창업자 고객이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며 찾아왔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아이컨 큰 건이다” 싶은 지적소유권 관련 계약의 타결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다. 수개월 간 협상을 끌어오던 상태였는데 계약 사항들이 문서화되기 시작하다 보니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조항들과 법률용어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두려움 반 큰 기대 반의 눈빛으로 필자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변호사와 상담을 처음으로 한다는 그에게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내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반드시 사업의 번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아니,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얼핏 들었을 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고객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었을는지 모른다.

신생 벤처기업을 돕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조심스럽다.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그만큼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창업 기업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매우 유능하며 입지가 뚜렷한 개체를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고객의 경우, 중요한 계약서 하나가 갖는 의미는 더 컸다.

물론 계약의 성사가 반드시 큰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성사가 효과적인 방법의 광고 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다. 아직 유명세를 타기 전인 스타트업의 경우 큰 계약의 성사와 그에 따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성장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잠재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외의 무리를 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의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것을 중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키지 못할 협약은 하지 않아야 하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줄여내고 쳐내고,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약 성사 후에 파생될 수도 있는 실패와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담하게 되고는 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된 조항들에는 이상이 없는데, 법률가가 아닌 경우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 때문에 협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Choice of Law and Venue (계약서상 위반행위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며, 어디에 위치한 재판 관할 구역에서 소송이나 중재변론을 열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사항이 사전의 큰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자동 삽입되고는 한다. 이런 조항은 법률가의 개입으로 인하여 문제시 된다.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간혹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 너무 먼 타주라던가 국제사법 혹은 강행규범이 매우 차이가 나는 지역을 오가며 재판을 하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조항이 되었던지 쌍방 간에 절충하지 않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되고, 협상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잘 쓰는가도 중요하지만,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청약자와 피청약자 측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상대방을 납득시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역시 사업자들이 안고 가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결국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사업자의 선택과 사업의 결과가 달라진다. 필자를 찾아온 고객은 어떻게 보면 특정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게 위험천만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다행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213) 344-9929/(949) 477-3004



■ 건강 칼럼

현대인에게 만성질환은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질병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지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겠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현대병이라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병으로 명명되는 많은 성인병들인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암, 비만을 비롯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질병,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런 병들은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게 생기는 것입니까?

진화생물학자인 앨러나 콜렌(Alanna Collen)박사는 ‘현대병의 진짜 원인은 장내 미생물’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80세 안팎으로 늘어난 4대 요인으로서 면역주사의 발견, 의료환경의 개선, 공공시설의 위생관리 개선, 폐니실린 등 항생제의 발견을 꼽았습니다.

1900년 선진국 사망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대 사망원인은 폐렴, 결핵, 감염성 설사였는데, 2005년 선진국 전체사망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3대 사망원인은 심장병, 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심장병, 암,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이 만성질환을 앓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앓을 것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2044년에는 전체인구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보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저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자신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날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병이 그동안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병은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아

니라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바꾸어 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증상은 호전될지 몰라도 병의 근원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호전되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약의 세기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약을 더 복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과연 병을 고치는 옳은 방식일까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AFH (Anti-Fragility Health)에서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재건강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될때까지 도와드립니다. 개개인에게 적합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제시하고 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립니다.

우울증, 파킨스, 치매 등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들도 약의 도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저 증상만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어 그 뿌리를 치료함으로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클리닉의 미션이고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식사와 영양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AFH (Anti-Fragility Health)가 고객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을 유지하는지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미주 최대 보험사 AAA에서 미 전지역 한국인 담당 Franklin Joo

• 자동차 • 집 • 사업체 • 보트 보험

보험에 대해 새로 알아 보시거나
비교해 보실 분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714-593-2291** joo.franklin@aaa-calif.com

